

또 하나의 나, 우리

Vol.70 2015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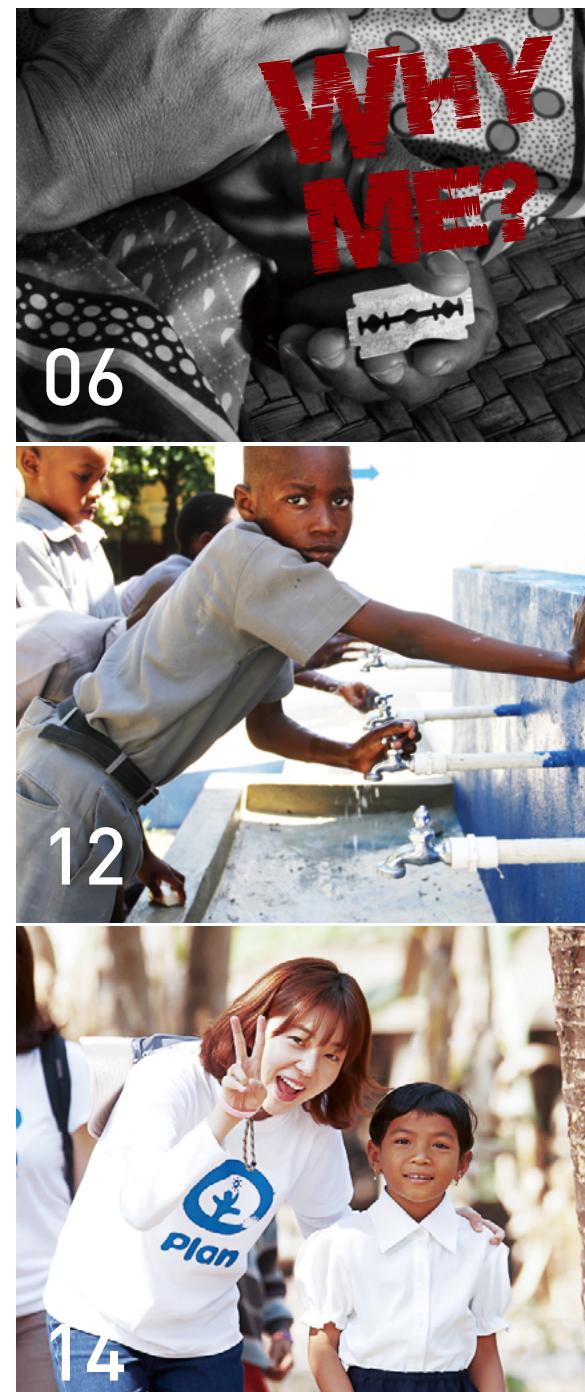


PLANKOREA
www.plankorea.or.kr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PLAN KOREA Vol.70 2015 SPRING

- 04** 지구촌을 간다 1
제7회 The 좋은여행
- 06** Plan Report
Why me? 여성할례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 08** 우리는 플랜가족 1
타루시의 열네번째 생일
- 10** 지구촌을 간다 2
스리랑카, 사랑할까?
- 12** 플랜 긴급구호
Then and Now:아이티 지진 5년
- 14** 지구촌을 간다 3
후가보다 봉사활동
- 16** 우리는 플랜가족 2
마연희 후원자
- 18** Plan Board
뜨리마 까시, 플랜:인도네시아 그로보간에서 온 소식
- 20** 후원소개
- 22** 나눔의 행복
세림병원
- 24**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가나
- 25** Enjoy Plan
- 26** 플랜 소식



작은 실천, 큰 사랑

실천 1 후원금은 자동이체 혹은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기!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셨다면, 결제정보 수정하기!

▶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실천 2 도로명 주소 및 변경된 연락처 등록하기!

▶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6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후원문의 02.790.5436

www.plankorea.or.kr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 이메일 | kno@plankorea.or.kr

| 통권 | 제 70호 | 발행일 | 2015.03.25 | 발행인 | 노영찬 | 발행처 |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가슴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 제7회 The 좋은 여행

플랜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제7회 The 좋은 여행 모집공지를 발견한 후, 신청할 때까지 그 공지화면을 몇 번을 들락거렸는지 모르겠다. 전화해서 궁금한 점도 확인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모집 기간이 끝나갈 때쯤 마침내 신청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10년째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동결연을 하고 있는 후원자지만, 이실직고하자면 편지도 잘 보내지 않는 무심한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매월 보내는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후원아동이 실제 어떻게 살고 있고 플랜의 활동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만 전해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약간의 문화충격을 받았다. 패키지여행처럼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후원자들이 기획과 준비에 참여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 미처 준비해가지 못해 아쉬워하며 다음 번에는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플랜 담당 직원으로부터 방문지역인 태국 치앙마이, 치앙다오 지역과 방문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후원자끼리 서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만남이라 어색했지만 이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선물할 연필과 머리핀, 막대사탕, 보드게임 등을 준비할 수 있었다.

출발일 당일, 공항에서 만나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밤중에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짐을 풀 새도 없이 자고 일어나니 드디어 첫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플랜태국 치앙마이 사무소를 방문했다. 후원지역 방문일정을 함께 할 플랜태국 직원들이 사무실을 안내해주고 나서 바로 차로 3시간이 걸리는 치앙다오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나눠줄 풍선을 불고 묶고 모양을 내느라 분주했다. 개인적으로 풍선이나 폭죽, 삼폐인처럼 큰 소리가 나는 것들을 무서워해서 처음에는 풍선이 터질까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계속 만들다 보니 어느새 똑똑하고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사진을 보니 풍선이 터질까 무서워서 인상을 쓰며 만들고 있긴 했다.



태국 북부 국경지대 고산족 마을에 있는 학교에 도착하니 마침 그 부족의 명절 기간이라고 했다. 현지인의 환대로 형형색색의 장식이 걸린 나무 아래서 환영의 뜻이 담긴 부족 전통 촐 공연도 보고, 예정에 없던 점심 대접도 받아서 본의 아니게 플랜에서 준비한 점심 도시락과 함께 두 끼를 먹게 되었다. 방문만 했을 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어 다소 민망했지만, 현지에서 준비해준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한 그릇을 다 비워버렸다. 식사가 얼추 끝난 후 또다시 풍선을 만들면서 플랜태국 직원이 들려주는 후원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전통 촐 공연을 봤던 마을 콘터 한쪽에 유실수와 꽃을 적절히 섞어 심어 화단을 만들고 나서 학교로 이동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 제기차기도 하고 준비해간 풍선과 선물도 나눠주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었다. 도서관에서는 후원자 중 한 분의 CPR(심폐소생술) 강의도 진행되었다. 일정이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학교는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 나도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또 다른 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먼저 도착한 작은 유치원 마당에는 우리를 위해 전통복장을 덧입은 아이들이 나와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도 하고 공 던기 놀이도 하고 화단도 만들어 주었다. 가는 길에 차에서 열심히 만든 풍선과 폴라로이드 사진은 기본이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간 막대사탕도 나눠주고 머리핀도 하나하나 꽂아주면서 더 예쁜 걸로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한 걸 후회했다. 현지 통역사의 말을 들어보니 맨발로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오는 아이도 있다고 했다. 굉장히 작은 아이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신발을 준비해올 걸 싶었다.

오후에 방문한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현재 운영 중인 학생운행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학생들이 공예품을 만들고 그 수익을 학생운행에 저축해서 졸업 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은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도록 격려하고 있는 적극적인 분이셨다. 학생운행을 둘러보고 나니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환영의 의미로 촐 공연을 보여주고, 직접 만든 수공예 팔찌도 손목에 걸어주었다. 또 한 번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나 싶어 고맙고 미안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축구를 비롯해서 캠거루 자루 뛰기 등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여러 게임을 했다. 여기서도 부지런히 만들어 온 풍선을 나누어 주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 주고 마지막으로 간식과 음료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고 나서 차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오는데 그새 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방문학교라는 생각에서였는지 마음이 짠했다.

처음에는 휴가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비용 부담 때문에 여행신청을 망설였었는데, 그때 만약 이번 여행을 포기했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도 못하고 좋은 사람들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살짝 만감이 교차했다. 가는 곳마다 환영 공연을 준비하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현지 학교 학생들과 유치원의 아이들, 하나님도 더 베풀고 싶어하는 후원자분들, 그리고 단순히 일을 떠나서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플랜 직원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여행이라 그런지 피곤할 법한 일정이었는데도 얼굴 하나 찌푸리는 사람 없이 행복하고 친절한 모습뿐이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얻은 게 무궁무진한, 가슴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이었다. 이제는 나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The 좋은 여행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여성할례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2월 6일은 유엔이 정한 “여성할례 철폐의 날”입니다.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장 참혹한 인권 침해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29개국에서 1억 2천 5백만 명 이상의 여자아이들이 오늘날까지도 할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다출혈과 상처감염, 출산 시 합병증 유발, 정신적인 충격 등 할례의 후유증은 심각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Why ME?

니카타(16세)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문화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할례를 당했습니다.



여성할례의 위험성

여성할례는 대부분 사회문화적 관례로 시행되고 있으며, 어떤 의료적 타당성도 없이 여성의 생식기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여성할례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과다출혈과 상처감염, 출산 시 합병증 유발, 정신적인 충격 등 할례의 후유증은 심각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어린 여자아이가 여성할례를 겪고 나면, 그 아동은 바로 성인으로 여겨져 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여성할례는 분명히 많은 나라에서 법에 저촉되는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할례를 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만연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수용 받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플랜의 활동

플랜은 2030년까지 여성할례를 근절하는데 목표를 두고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의회와 부모, 마을 대표,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여성할례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여성할례 금지법이 엄중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과 여성할례 반대 협의회, 치안 판사 법원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당한 여자아이들은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할례 이후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돋는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여성할례 상담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할례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관습이라는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성할례를 절대 반대합니다. 어린 여동생이 제가 겪은 일을 겪길 원하지 않죠. 이미 할머니께서 동생에게 할례를 하도록 강요하신다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요.”

“제가 아홉 살 때 할머니께서 절 밖으로 부르셨어요. 기억나는 건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겁에 질려있었고, 어둑한 불빛 아래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요. 너무 아팠고, 고모는 저를 보살피기 위해 우리 집에 머무셨어요.”

“열네 살쯤 되어서야 저는 당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께 저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질문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일반적인 규범에 벗어나서 마을 주민에게 반역자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 기만이 있었다고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저를 용감하다고 칭찬하시며, 그 일로 제가 진정한 여성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몸의 일부가 제 허락도 없이 ‘제거’되었어요. 할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저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애속하고, 너무 화가 나요. 저의 인권은 어디 있는 거죠? 왜 저였어야 하는 걸까요?”

타루시의 열네번째 생일

7년 동안 플랜을 통해 후원해온 타루시!

후원이 아닌 딸을 키우는 심정으로 언젠가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생기고 일상에 지쳐 미뤄오다

아이가 둘이 생기면 더욱 타루시를 만나러 가기 힘들 뿐 아니라

타루시가 몇 년 뒤면 18세가 되어 후원이 끝나기 때문에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14번째 생일을 맞는 그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

아직 젖먹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는 십대 여자아이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획되어 있던 출장 기간이 연장되어 스리랑카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타루시의 집에 방문하니 생일이라 우리나라 백설기 케이 같은 코코넛 밀크 케이를 대접받았습니다.
타루시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격하게 환영해주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아내가 많은 준비를 하기는 하였지만
막상 타루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방문하니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학용품과 현지에서 산 초콜릿에
좋아하던 아이들! 우리도 어렸을 때 웃을 일이
이리 많았나 싶을 정도로 밝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연필의 알록달록 색깔에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후원할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타루시 생일을 맞이하여 타루시 부모님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괜히 생일에 방문하여 부모님께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지만 스리랑카에서 가정식을 함께 먹는 것도 타루시와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처음 후원을 할 때는 타루시에게 여동생이 한 명이었는데 그사이 한 명의 여동생이 더 생겼고 곧 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된다고 하니 타루시가 18세가 되어 후원이 끝나도 동생들에게 후원을 계속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으로 기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후원하는 금액이 그리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나니 정말 후원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이라 분홍 드레스를 입고 춤과 노래를 보여준 타루시!

쑥스러워 답가를 못 불러 줘서 미안해.

다음에는 노래연습 열심히 해서 보자.

그리고 타루시가 그려준 그림도 잘 간직하고 있을게.”

타루시가 다니는 학교
한국의 기업에서 지어준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리랑카, 사랑할까?

스리랑카에서 행복을 옮기다 현대건설-HAPPY MOVE 14기

한 명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두 명의 움직임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열 명의 움직임은 작은 행복을 만들며, 80명의 움직임은 스리랑카의 작은 학교에 행복한 변화를 만든다. 현대건설-80명의 대학생 해피무버-플랜코리아가 함께한 행복한 변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스리랑카 어디까지 가봤니?

2월 2일 오후 6시. 분주한 공항에 해피무버를 상징하는 초록색 조끼가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출국 전날까지도 다 같이 모여 스리랑카 주민들에게 보여줄 문화공연을 연습했다는 학생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웃음은 떠나질 않았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스리랑카로 향하는 밤 비행기에 올라탔고, 9시간 후 우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덥고 습한 날씨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겼다. ‘정말 덤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게 될 2주간의 짧은 여정이 기대되었다.

선생님들과 마을주민,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호라나-현대건설 후원 학교를 가다

우리가 활동하게 될 호라나 학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세라믹 공장에 다니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부모들과 커서 그 부모가 다니던 공장에 다니는 자녀들은 크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지만, 학교가 생기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기 시작해 이제는 어느 학교보다도 교육의 꽃을 피우는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하는 학교였으나, 현재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열정과 변화가 느껴졌다. 현재는 학교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학생들이 열린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놀이교육 공간을 만들어 교육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연수까지 오는 학교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학교 환경은 열악했다.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학생부터는 국어, 수학, 과학 등 과목에 따라 옮겨가면서 수업을 들었고, 고장 난 버스를 가져다가 교실을 만들었지만 여름에는 버스 안 온도가 60도를 넘어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은 교실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인 증축/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해피무브 14기는 이 보람된 작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눈만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주고 싶어졌다.



땀방울이 만든 교실에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할 때까지!

현대건설-해피무버들의 주된 작업은 부족한 교실을 짓고, 교실 벽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보수해야 할 곳이 많아서 페인트 팀, 벽화 팀, 모래 이동 작업 팀 등으로 나누어 작업을 시작했다. 해피무버들이 곡괭이를 들고 모래를 파헤치고 있으면, 호라나 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업을 도와주었다. 맨발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불안해 보여 그만하라고 하니 옆에 서서 우리를 응원해주었고,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해피무버들의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다. 우리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벽화를 그리고 있는 해피무버가 더울까 부채질을 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계속 물어보며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래 더미는 사라졌고, 허름했던 교실 벽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들었으며, 쌓이지 않을 것 같았던 벽돌이 하나둘 쌓여 교실의 벽을 만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던 모래바닥에 희망이 쌓이고 있었고 호라나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해피무브와 플랜코리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정성이 깃든 음식은 보약보다 강하다

호라나 학교에서 2주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현지 사람들이 만들어 준 간식이다. 더운 날씨 탓에 땀도 많이 흘리고 고된 작업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배가 금세 고파왔다. 그런 해피무버들을 위해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은 매일 새로운 간식을 준비해주셨다. 코코넛 과일에서부터 생강을 넣어 만든 설탕 음료, 코코넛과 쌀을 섞어 만든 음식까지.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양한 간식들을 매일 먹을 수 있었다. 특히나 녹두와 쌀을 함께 넣어 끓인 따뜻한 음료는 잊을 수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더운 날 왜 따뜻한 음료를 주지?’라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음료 덕분에 해피무브 사상 최초로 모든 인원이 배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정성이 깃든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우리는 스리랑카 주민들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스리랑카, 음악으로 하나가 되다

호라나 학교에 큰 현수막이 걸리고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었다. 해피무브 14기와 현대건설이 함께한 호라나 학교 건축프로젝트를 끝마치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날을 위해 해피무버들은 건축봉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공연 연습을 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하게 될 한국의 모습이 해피무브 14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사물놀이, K-POP댄스, 부채춤, 태권도, 난타 등 해피무버들의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현지인들을 보니 지난 2주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엔딩공연으로 스리랑카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는 ‘하나’였고 그렇게 서로에게 물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보여졌던 한국의 모습이 유쾌하고 역동적이길 바라면서 스리랑카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11박 12일이라는 소박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숨 막힌 세상에 시달린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현대건설, 플랜코리아와 함께한 해피무브를 통해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을 도우며 세상을 조금씩 움직였다. 80명의 해피무버와 스텝들은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항상 스리랑카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담긴 교실에서 꿈을 키워나갈 아이들을 항상 응원할 것이다.



2010년 규모 7.0의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했다.

이 지진은 캐리비안의 작은 섬을 파괴시켰고 3백 5십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4,000개의 학교를 파괴하고 훼손시켰으며, 22만 명이 사망했다.

지진 이후 플랜은 아이티에서 긴급구호활동 및 재난대응활동을 5년째 펼치고 있다. 이제, 지진의 잔해들이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 후부터 캠프에 살고 있던 아이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거처에 살고 있다.

포르투프랑스 도로는 다시 깔렸으며 재포장 중이다. 지진에 의해 파손된 집들은 다시 지어지고 있고 아이티 내 작은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플랜은 긴급구호 활동의 최전방에 서서 학교를 재건하고,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지진의 여파를 즉각적으로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었지만 플랜과 같은 단체들의 노력으로 학교가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에 플랜과 후원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티 사람들의 노력이 실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 존 살로녀, 플랜아이티 대표

그러나 여전히 아이티의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은 더 필요하다.

플랜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다시 학교에 다녀요!

지진으로 인해 타마린 데 산토 국립학교가 붕괴되었다. 교실 벽에는 금이 가고 나무 바닥이 썩어 그 위를 걸을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양철 지붕은 구멍 나 비를 전혀 막아줄 수 없었다. 교실 자재들도 모두 피해를 입어 아이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바위 위에 앉아야 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플랜에 도움을 요청했다. 플랜은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 지진과 태풍에 견딜 수 있게 학교를 재건했고, 앞으로 3개의 교실과 놀이터, 식수 설비를 계속해서 건립할 예정이다.



6학년인 나디아는 타마린 데 산토 국립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친구랑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늘 함께 놀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는 줄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디아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다시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엔 숙제와 복습을 해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지진 이후 플랜에서 나눠 준 묘목을 심어 마을이 푸르러지고 있어요. 저도 꿈을 갖고 푸르게 살 거예요.”

다시 희망을, 여성 자립 프로젝트

“2010년의 지진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7세 에바의 삶은 지진 이후 혼란 속에 빠졌다. 집이 무너져 남편과 아들, 친척들과 함께 임시 보호 천막에서 살아야 했고,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잃었다. 에바가 아이티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플랜을 만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7개월이 걸렸다. 플랜은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의 권리와 생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의 원예모임, 양계장 프로젝트, 바느질 모임 등 생계 교육과 재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키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목표가 생겼어요. 지금은 양장점도 생기고, 양계장도 운영하고 있죠. 5년 안에 20대의 재봉틀을 더 들이고 싶어요. 2010년에 저는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독립적이죠.”

거리의 여성에서 텃밭을 갖게 되기까지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레이첼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거리로 내몰렸다.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았죠.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 임신을 한 레이첼은 딸을 낳은 후에 딸을 위해 자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플랜의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의 권리와 생계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시장에 판매할 작물 재배법을 배웠다. “지금은 토마토와 피망, 시금치, 바나나 농사를 짓고, 딸을 키우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배워 저축도 하고 있죠. 플랜을 만난 이후로 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임을 알았고, 딸을 위해 전 앞으로 더 나아갈 거예요.”

플랜의 대응활동 결과

33,000명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감

314개

지진과 태풍에 강한
교실 건축

1,200명

여성 소액금융
교육



작멜의 JM 헨리퀴즈 학교 재건



마리 레인 이마킬레 학교 재건



포르투프랑스에서 사업 재개



도시 속 거리의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센터

지구촌을 간다 3



휴가보다 봉사활동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봉사활동. 이번엔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기도 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 겁이 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위해 세림병원에서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보건소 건립을 위해 작은 바자회를 열었다. 세 번째 봉사활동이니만큼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계획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은 실현된 듯해 더욱 기대되는 방문이었다.

의료의 사각지대, 그 중심의 아이들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난 아이는 뇌 수두증을 앓고 있는 5살 꾸이였다. 꾸이는 태어나서 한 달 후부터 뇌에 물이 차서 늘 누워지내는 안타까운 아이였다. 뇌에 물이 차 이미 시력도 잃었다고 했다. 꾸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가족을 버린 아빠 대신 엄마는 꾸이를 더리고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집 근처 사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걸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꾸이는 혀가 기형이라 의사 표현을 말로 할 수 없어 머리가 아플 때마다 바닥을 치거나 자기의 머리를 치며 고통을 표현하며 진통제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함께 방문한 세림병원 원장님의 적극적으로 나서 추후 꾸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로 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우리는 나라와 부모, 태어나는 배경을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환경 속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베풀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일종의 책임감이 들었다.

더욱 건강한 내일을 위해, 꿈을 위해

이튿날, 차로 한 시간 가량 달려 양코르 톰 지역 퍽스냉 마을의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면 당연히 상주해야 할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대신 간호사분들이 이 간단한 수술과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병원 같은 보건소였지만 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간호사 다섯 분 정도가 일하고 평상 같은 침대가 있는 방이 입원실이며 옆이 수술실이었다. 약은 매달 첫째 주에 들어오고 2주, 3주가 되면 약이 떨어져서 처방전대로 약을 챙겨줄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마을 주민의 건강상태 관리를 위해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세림병원의 지원으로 좀 더 나은 시설들이 보충되면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뿌듯해졌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단한 협약식을 통해 보건소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가 다녀간 뒤 시설이 보완되고 약도 더 많아져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느 곳의 아이들보다 해맑은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길 바란다.



작고 여린 소녀, 후원아동 소피아와의 만남

이번 방문에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후원아동 소피아와의 만남. 어색하면 어쩌지, 낯을 많이 가리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소피아는 생각보다 더 작고 소녀 같고, 사진보다 더 예쁜 소녀였다. 의사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 낯선 이방인 여러 명이 방문했지만 낯도 별로 가리지 않고 집 구경도 시켜주었다. 소피아가 직접 가족들도 소개해주고 학교생활도 이야기해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비한 선물을 언니랑 사이좋게 나누어 갖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피아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후원해주고 싶다. 나로 인해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라며 말이다.

해피무버와 함께 해피한 에너지

마지막 날, 우리는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이 캄보디아에서 일주일째 봉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다. 학교에 도착해 먼저 수업 중인 아이들을 위해 선물로 준비한 공책을 나누어 주고 미리 준비해간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꽃, 산, 책,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늘 비슷하다. 아이들에게 바다를 그려보라고 하면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리지 못한다. 꿈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대부분이 선생님, 경찰, 의사 세 가지 중 하나다. 그만큼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세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물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의 행복을 내 판단 기준의 잣대로 선별로 깨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을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으면 한다. 아이들과 한바탕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해피무버 친구들을 도와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다. 토대가 올라가고 시멘트 작업이 된 곳 위에 철사들을 엮는 작업과 시멘트를 나르는 일을 도왔다. 땅볕 아래서 힘은 들지만 그 안에서 재미있게 일하며 추억을 쌓는 건강한 이십 대의 모습이었다. 그 속에 섞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일하다 보니 덩달아 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다.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처음엔 뭔가 거창해 보였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긴 시간과 많은 사람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거창함보단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진심을 다해 그 시간 동안 함께해서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고 좀 더 풍요로워진다면 그게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싶다. 난 저 사람보다 나오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받은 사랑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어디에서 도 볼 수 없는 순수한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따스함이 모여서 실패해도, 좌절해도, 가난해도, 남과 달라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글 | 플랜코리아 백진희 흥보대사 사진 | 포토그래퍼 원상희

후원자 인터뷰

후원자 홍보대사 마연희 후원자님



**플랜코리아 후원자 홍보대사를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플랜코리아 후원자 마연희입니다. 플랜을 통해 총 6명의 아이를 만났어요. 제 이름으로 한 명, 남편 이름으로 한 명, 2012년 태어난 아들 이름으로 1명,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이름으로 3명을 후원하고 있죠.

플랜코리아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여행사는 맞춤형 여행사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하는 여행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행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맞춰서 공정 여행으로 진행해요. 그러면 보는 것도 다르고 여행 의도 자체도 다르죠.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께 플랜코리아 이야기를 하면 현지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후원에 대한 생각이 더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아동후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는 여행의 일부가 현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저희 패키지에도 플랜코리아 리플렛을 껴서 드리고, 카페나 SNS를 통해서도 아동후원에 대해서 알리고 있어요. 여행 관련 강의도 하고, 칼럼도 쓰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후원이나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여행을 넘어서서 나눌 수 있는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본인이 확고한 생각이 있지 않다면 남들에게 추천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후원자님이 생각하는 후원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 달 삼만원으로 지금 후원하는 아이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점이에요. 그 아이가 일하는 대신 학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도 될 수 있고, 기술자도 될 수 있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죠. 주변에 추천 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달에 커피 몇 잔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좋은 일 하라고 꼭 이야기하죠. 삼만원으로 아이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지 않느냐고. 또 하나는 직업상 외국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직 어린데 물건을 팔거나 구걸을 하는 현지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예전보다 마음이 덜 아파요.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면 아픈 마음이 더 줄어들겠죠. 후원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하면 더욱 뿌듯해지고 살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나보다 감사하게 되고 그래요.

어떤 계기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계기가 있었어요. 태국 시골 지역 호텔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아이를 만났는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건너와 일하

는 18살 친구였어요. 비가 오는 날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데, 밖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이 징했죠. 한국에서 18살이면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일을 많이 한듯한 손을 보면서 마음이 찐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플랜코리아를 알게 되었죠.

**많은 후원단체 중 특별히 플랜코리아를 딱 선택하신 거잖아요.
플랜코리아에 후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후원을 오래 하려고 다짐했기 때문에 처음에 후원단체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비종교 단체라는 점이었죠. 비종교의 좋은 점은 종교를 떠나서 그 문화를 존중해준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런 후에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을 시작했죠. 처음에 제가 신중하게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플랜코리아 통해서 후원하라고 지인들, 그리고 주변에 자신 있게 말해요.

플랜코리아도 알고 후원을 추천하시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후원을 결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웃음), 저희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다녀온 분들께, 카페 회원들에게, 페이스북 통해서도 후원아동의 커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올려요. 계속 올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후원을 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후원을 시작하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작은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틈만 나면 이야기하니까, 하게 되면 플랜코리아를 찾게 될 것 같아요.

후원을 결심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후원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소비할 때 소비의 기준이 삼만원이 된 점이에요. 이거 내가 사지 않으면 아동 후원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 한 잔 커피를 덜 마신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의식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인가 생각해요. 부가 너무 편중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바꾸진 못하겠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이야기해서 함께하고 싶어요. 모금함을 놓고 일시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모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요. 한번 참여해도 좋고, 또 그게 여러 번이 되면 더 좋고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열심히 홍보해야죠. 기회가 닿는 데까지.

아이스버킷처럼 기부가 이슈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이왕이면 이슈화를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오픈을 하고 있어요. 아동을 후원하면 그 아이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다 후원은 못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열 명한테 말해서 한 명이라도 한다면, 그래도 정말 좋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로보간

인구 : 1413,336명
사업장 : 19개주, 280개 마을
플랜 후원 지역 : 19개주, 273개 마을
후원아동 : 7,500명

플랜은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 그로보간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역량강화, 위생과 청결, 아동 권리옹호, 질병 위험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 청소년 경제력 향상 프로그램 등 어린이 중심의 지역 개발을 시행하였고, 이제 그 결과 마을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플랜은 점진적으로 그로보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플랜사업 철수 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공식 빈곤선, 건강지수, 정부 인구조사 및 통계청 자료를 통해 지역의 빈곤율 및 아동 빈곤 지수 파악
회복력 및 지역 공동체 역량 파악
지역개발 진전 여부 파악

단계적 철수

프로그램 지원 축소 및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권한 확대 철수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철수 종료

멘토링 활동
피드백을 위해 1년간 비정기적인 플랜 직원 참여 및 관찰

뜨리마까시, 플랜 인도네시아 그로보간에서 온 소식



위생과 청결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위생과 청결 분야는 그로보간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프로젝트입니다. 플랜은 지역 파트너와 함께 손씻기, 깨끗한 물 마시기 운동, 양치질과 같은 위생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2개의 마을과 1,494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건립하고, 78개의 초등학교에서 위생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69,927개의 가정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비누로 손을 씻고, 플랜이 제공한 칫솔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생분야에서의 노력으로 인해 플랜인도네시아는 2014 유엔 MDG 어워드에서 위생과 청결 부문 가장 혁신적인 시민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유아 보호 및 개발 (ECCD: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총 47개의 ECCD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1,741명의 4~6세 아동이 도움을 받고 이 중 762명이 초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 모임(MSG: Mother Support Group)이 124개 만들어졌고, 총 373명의 임산부와 1,382명의 수유모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모유 수유, 성생활, 임신과 영양 등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보간 보건센터에서



는 캠페인을 통해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유 수유를 권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조기임신, 조혼,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신과 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영양 공급의 일환으로 23개 마을에 있는 242개 가정이 작물 재배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30개의 어류 양식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정부의 지원으로 플랜의 사업 지역이 아닌 곳으로도 확산되어 총 458개 가정이 작물재배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경제력 향상 프로젝트 (Youth Economic Empowerment)

인도네시아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동인구로 인해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보간 지역 또한 일자리가 부족해져 많은 청년들이 도심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랜은 청소년 경제력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직업 교육 및 경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위한 소액대출을 시작했으며, 보다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기술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14명의 청소년, 160명의 여성과 154명의 남성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단체 및 현대·코이카 프로젝트와 협력했습니다. 8명의 신체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8명 중 5명이 칼리만탄 섬에 있는 자동차 제조 회사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개선 프로젝트 (School's Improvement Program)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61명의 교사와 32명의 교장 선생님이 교사 수준 및 학습 수준 향상, 포괄적 교육 기술 개발과 같은 교육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증진시켰고, 성별,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관계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고, 6천 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12개의 학교에서 439명의 학생들에게 홀체어를 제공하였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재해위험관리 (Disaster Risk Management)

그로보간은 지질학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홍수와 기우 등으로 인해 작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식량난이 심화되었습니다. 플랜은 지역주민들이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24개의 세이프 스쿨(Safe School)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로보간의 모든 학교에서는 지역 질병 관리 위원회의 질병 위험 최소화 모델을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천 명의 어린이들과 97명의 교사, 그리고 621명의 지역주민들이 세이프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로보간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위험관리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지역을 기반으로 아동보호위원회를 두고, 그로보간의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고, 어린이들이 지역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조혼 방지 캠페인, 아동 학대 및 집단 따돌림 방지 캠페인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마을마다 설립되어 총 39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플랜이 마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예산 편성을 하여 아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시행했고, 어린이들과 가족,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플랜이 그로보간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도 지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받아 지역 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플랜인도네시아는 그로보간 지역보다 빈곤한 지역인 인도네시아 동부의 동 누사 텅가라 주 (Province of East Nusa Tenggara)에서 아동후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 그로보간 프로그램 지역사무소장, 웰헬름스 포엑(Welhelmus Poek) 올림



간식 줄이기

간식을 줄여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을 선물해요!

전미선과 함께 ECCD센터 지원

영유아기는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시기에 맞춰 발달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과 치료, 영양 공급 및 성장 체크,
초기 교육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합니다.

재테크

여자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
아름다운 지구촌을 위한 재테크입니다!

김성령과 함께 여아 교육 지원

전 세계 6천 5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여자아이들이 1년 더 교육을 받으면, 기대소득이
15%나 증가합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여자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선물합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송재림과 함께 Dream Village 건립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
아플 때 언제든 치료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어린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운동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출생등록으로 기본적인 권리 to 지킵니다!

걸스데이와 함께 출생등록 선물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5세 미만 어린이 2억 3천만 명.
출생등록 지원을 통해 교육과 보건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금연으로 건강도 챙기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백진희와 함께 보건 지원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코리아 홍보대사가 제안하는
2015 The 좋은 플랜

한 해 동안 이것만은 꼭 지키자!
계획을 이미 세우신 분들도, 아직 세우지 못한 분들도 플랜코리아와 함께
일년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작은 플랜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The 좋은 플랜! 함께하면 더 좋은 플랜이 됩니다!

후원신청
방법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자세히보기](#)

이벤트
2015 The 좋은 플랜
자세히보기

홍보대사별
프로젝트 선택

정기후원
일시후원



홍보대사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홍보대사 프로젝트 중 최고의 프로젝트를 반기별로 선발한 후
정기기부 15명과 일시기부 5명, 총 20명의 후원자에게
해당 프로젝트 홍보대사와의 식사 초대장을 보내 드립니다.

세림병원 사회공헌활동 소개

건강한 세상을 꿈꿔요!



세림병원이 플랜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에 4개의 보건소를 지원한다. 아동 보건 분야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보건문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세림병원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 톰 지역과 반테이 스레이지지역 링다이 마을, 픽 스네 마을, 살라 크로반 마을, 프리타 마을 등 총 4개 마을에 4개 보건소를 지원해 해당 지역의 보건소 시설개선과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향후 낡고 오래된 보건소 내·외부 개보수와 보건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회장실과 손씻기 전용 세면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위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앞서 세림병원과 플랜코리아는 임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진희 홍보대사를 초청해 그동안의 봉사 활동 내용을 나누고,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캄보디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임직원 아동결연 및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바자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협약식 후 백진희 홍보대사와 양문술 원장은 4박 5일 일정으로 보건소가 지원되는 캄보디아에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 아이들의 위생 상태 및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희망을 나누는 봉사

세림병원은 지역사회에 저소득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물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봉사를 통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사업실 지원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겪는 저소득 소외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사업실의 상담 절차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진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림의료봉사단

의료진이나 의료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적인 의료봉사 및 보건 교육은 물론 열악한 의료시설을 개선하거나 진료소를 세우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의료봉사

난민들(합법 체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림병원과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MOU 협약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한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이 없어도 보험환자 수기에 준하는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해외자선병원 설립

세림병원은 무료병동을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분들과 함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세림병원을 설립하였다. 각 병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병원의 자립을 돋기 위해 의료봉사단이 함께하고 있다.

가나 Ghana



가나의 국가 정식 명칭은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이다. 해안지대가 황금해안(Gold Coast)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1874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57년 3월 6일 가나로 독립한 후, 같은 해 3월 8일 국제연합(UN)에 가입하였다.

가나는 60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종족별로 다른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은 가족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며,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가족 행사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행사 시에는 추장과 부족을 중심으로 축제의식을 벌이는데, 장례식도 죽은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여 축제를 한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3년, 종합대학 4년, 졸업과정 3년, 대학원 2년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가나는 주로 금과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생산하여 수출하며, 에너지, 건설, 운수, 통신 등의 산업은 아직 발달이 미비한 편이다. 가나는 최근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력, 화력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1호기의 규모는 1GW이며, 원전을 확보하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남아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원전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력 상황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다.

위치: 아프리카 서부

수도: 악라

언어: 영어 및 토착어(Twi어, Ewe어, Ga어, Fante어 등)

면적: 238,533km² (한반도 면적의 약 1.1배)

인구: 25,758,108명

기후: 열대우림기후

종교: 기독교 71.2%, 이슬람교 17.6%,

토속종교 5.2%, 무교 5.3% 등



플랜가나에서는?

플랜은 1992년부터 가나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는 300여 개의 지역사회에서 약 28,379명의 후원아동과 함께 하고 있다.

플랜가나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개 시설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VSLA(Village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을 운영하고 있다. VSLA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축된 자금을 빌려주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VSLA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기업식 농업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학비 및 병원비 등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력 강화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 보장 및 리더십을 키워주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주요활동

교육 개선 :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과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성별과 장애를 뛰어넘어 모두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보건 :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VSLA를 통한 경제적 지원, 청년들에게 필요한 직업 기술 교육, HIV/AIDS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질병 통합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보호 : 아동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과 지역사회의 참여,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

Because I am a Girl



겨울호 이벤트 당첨자

김동건, 박건희, 이수경,
이원미, 임영은 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그림찾기

참여방법

틀린 그림을 (5개)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plan.kr)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 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5년
여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 완공 캄보디아 미래의 자동차 정비사 양성

현대자동차와 플랜코리아가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의 완공식을 가졌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는 청소년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센터 신축은 물론 기자재 및 실습 교구를 지원, 교사 교육 및 운영 위원회, 인턴쉽 혹은 취업 연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센터를 통해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 교육을 제공하여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놈펜 현지에서 진행된 완공식에는 현대차 관계자 및 플랜코리아 관계자,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공을 축하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청년 봉사단 해피무브 단원 80명도 함께했다. 한편 이들은 2주간 캄보디아의 씨 암립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자! 플랜클럽 9기 발대식

2015년을 나눔으로 뜻깊게 달굴 플랜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9기가 발대식을 가졌다. 지구촌 이슈에 대해 알리고, 캠페인과 이벤트 기획부터 참여, 제작까지 진행할 20명의 플랜클럽 9기는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친선함과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플랜클럽은 올해도 아낌없이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한다. 플랜클럽은 2008년 출범하여 올해 9기를 맞이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플랜의 캠페인 지원 및 나눔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기 발대식에 앞서 2014년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플랜클럽 8기는 해단식을 진행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헬스케어 그룹 주비스, 플랜코리아와 해외아동결연 진행

헬스케어 그룹 주비스가 지구촌 아동 결연을 위해 플랜코리아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비스는 해외아동결연 및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외아동결연 협약식에는 주비스의 조윤경 본부장과 플랜코리아의 박제홍 부장, 그리고 양측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주비스는 해외아동결연을 통해 플랜이 진행하는 교육, 의료보건, 식수위생, 생계지원, 아동권리보호 등의 사업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나서게 된다. 주비스 관계자는 "협약식을 시작으로 주비스의 임직원과 해외아동이 인연을 맺게 되며, 앞으로 임직원 해외봉사, 후원아동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매너티' 홍보대사 위촉 5주년, 아프리카 아동 돋기 후원금 전달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인기스타 '매너티'가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지 5주년을 맞이했다. 매너티는 2009년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매년 한해 관람객들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플랜코리아에 전달하며 현재까지 총 10명의 아프리카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아쿠아리움 최병희 큐레이션 본부장 외 아쿠아리움 담당자, 플랜코리아 김병학 본부장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매너티가 전달한 후원금은 후원아동 10명 지원을 포함해 매너티의 고향인 아프리카 지역개발사업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아쿠아리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및 지역개발 사업에도 동참하겠다"고 전하며 후원금 전달식을 축하했다.



따뜻한 연말을 함께해요! 블랑블루 호텔 아트페어

2014년 연말을 따뜻하게 밝히는 '블랑블루 호텔 아트페어'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버서더에서 열렸다.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호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아 진행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전시회보다 커진 규모로 국내 120명 작가들의 작품 2,000점이 약 90개의 객실에서 전시되었다. 더불어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도 함께 열어 20명의 순수 미술 꿈나무들의 꿈이 담긴 작품 100점도 전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입장료 및 도록 판매 등 모든 전시 수익금은 플랜코리아에 기부되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빈곤 퇴치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플랜코리아 후원자에게는 무료 관람의 기회를 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티셔츠도 사고! 온라인 모금도 참여하고! 송재림의 Dream Village 함께하기

팬들은 물론 많은 후원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송재림의 Dream Village 캠페인이 더 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모금 서비스 위제너레이션(<http://wegen.kr>)과 플랜코리아가 함께하는 온라인 모금에서 송재림 홍보대사가 펀드레이저로 나서 5월 20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는 송재림과의 저녁 식사와 친필 사인, 후드티 등 다양한 리워드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티셔츠를 사는 것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송재림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USNTHEM에서 특별한 도네이션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금액의 3%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스냅백 반팔 티셔츠 등 다양한 도네이션 아이템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

라디오는 개발도상국, 특히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조흔부터 아동 성폭력까지 어린이들은 라디오를 이용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플랜은 1985년부터 35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개 이상의 청소년 미디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라디오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에볼라 사태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린이들에게 라디오는 학업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인도양 쓰나미 10년, 플랜의 구호 활동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해변을 중심으로 규모9.1의 강진에 이어 쓰나미가 발생해 14개 국가 22만 9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쓰나미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플랜은 쓰나미 대응의 선두기관으로 쓰나미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등 4개 국가를 중점으로 긴급 구호 활동을 실시했다.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재건 사업에 초점을 맞춰 대피소 제공, 교육, 아동보호, 영유아 개발 및 보호, 건강, 식수 위생, 생계지원, 이재민들의 정서적 안정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며 1백만 명 이상의 쓰나미 생존자들이 재해의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플랜은 또한 어린이들을 중심에 두고 백투스쿨(back-to-school) 키트와 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라위 대홍수, 플랜 긴급구호 시작

2015년 1월 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대규모 홍수로 2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8개의 주 중 15개의 주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5만 가구에 피해가 있었다. 특히 플랜의 활동 지역인 물란제 지역에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300명의 부상자가 속출, 12,500 가구가 집을 잃었고, 13,524 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되었다. 이에 플랜은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를 시작하고, 2천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 및 임시주거기, 위생 키트 등을 제공했다. 플랜말라위의 대표 릴리 오몬디는 말라위 남부의 이번 홍수 사태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홍수로 인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 아니라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 이번 홍수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스트 2015 개발의제의 중심에 여자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세계 여성의 날 주간에 열린 59회 유엔 여성지위원회에 회원국, 정부 대표, NGO들과 유명인사들이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모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5년 베이징 회의에서 채택된 양성평등 실현 강령을 재검토하는 한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맞춰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여자아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나갔으며,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에서 플랜의 소녀 대표단도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플랜인터내셔널의 대표 냐나젤 샘프만은 "여자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의 여자아이들이 포스트 2015 개발의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여자아이들의 교육과 보호, 참여의 권리를 옹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PLAN SHOP NEW ARRIVALS

Plan Shop

5월 5일 어린이날, 6월 16일 아프리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주세요!

WWW.PLANSHOP.CO.KR

노트
CEC, BIAAG



포스트잇
SCP, BIAAG



2015년
액자형 달력



저금통



Gift for sponsored child
Birthday Card 생일카드



한복카드
한복스티커



후원아동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
플랜샵에서 구매하세요!



구입 및 문의: 플랜샵
www.planshop.co.kr
02-516-5108

